



지난해 결혼한 부부 8쌍 가운데 1쌍은 남녀 모두가 재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결혼한 부부 중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재혼인 비율은 12.6%로 1년 전보다는 1% 포인트 늘어났고 1990년과 비교하면 7.9% 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총각과 결혼한 비중은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5.8%로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혼녀 초혼남 결혼 증가 추세

서울에 사는 여성들의 경우 초혼녀와 재혼남의

결합이 3.5%로 99년보다 줄어든 반면에 재혼녀와 초혼남의 결합은 4.6%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재혼 희망자 348명(남자 185명, 여자 163명)을 대상으로 '재혼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헤어진 뒤 바로 재혼을 결심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들은 "5년이 지난 뒤"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1년 후"(17.8%), "5년 후"(17.3%)등의 순 이었고 여성 응답자들은 "3년 후"와 "헤어진 후 바로"라는 응답이 각각 1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재혼 희망자들은 10명중 7명 꼴로 결혼 전 교제 기간으로 1년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측이 더 짧은 교제기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의 교제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녀는 거의 없었다.

재혼 희망자 절반, 자녀 있어도 무방

'자녀를 키우는 상대와 재혼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여성 83명(50.9%), 남성 75명(40.5%)

재혼부부 위한 프로그램 마련돼야



이광호 KBS 해설위원

이 '자녀 성별과 상관없이 가능' 이라고 응답해 거의 절반 정도가 자녀를 둔 상대와 재혼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혼 후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를 원한다고 답한 경우는 남녀 모두 10% 안팎에 머물러 상대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 "재혼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가 '성격' 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남성의 경우 '성격' 다음으로 '외모', '직업과 경제력' 을 꼽았다. 여성 응답자들은 '성격' 에 이어 '직업과 경제력', '가정환경', '종교' 의 순이었다.

초혼보다 더 힘든 재혼

3살 된 아들을 남편에게 빼앗기고 2년 전 재혼한 33살 김모씨는 지금 42살 된 남편과 초등학교 6년생 딸과 중학교 2년생 아들과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딸아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새 엄마를 미워하고 특하면 아빠 사무실로 달려가 울고 가까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쫓아와 심한 말을 한다고 한다. 두고 온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는 김씨는 재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김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초혼보다 몇 배 어려운 것이 재혼이라고 한다. 재혼은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다보니 전에 받았던 배신과 불신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 새로운 배우자에게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며 상대방을 관찰하게 된다고 한다. 또 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염려로 마음에 긴장을 풀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상대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문제

우선 재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자녀문제이

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산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교육 방침이 같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이들과 불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새엄마가 혼자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결국 남편과 시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없이는 아이들과 새엄마 사이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 엄마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뒤를 돌아다보고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재혼 후 제2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 버려야

우리나라는 이혼율에 관한 한 해마다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2003년 이혼건수는 16만 7천 쌍으로 전해에 비해 이혼이 15% 늘어났다. 이처럼 이혼율 급증으로 재혼가정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민적 의식이나 가치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아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이혼과 재혼이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추세라면 이를 예방하는 조처 못지 않게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도 재혼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혼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이제는 당국에서 이혼자나 재혼부부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